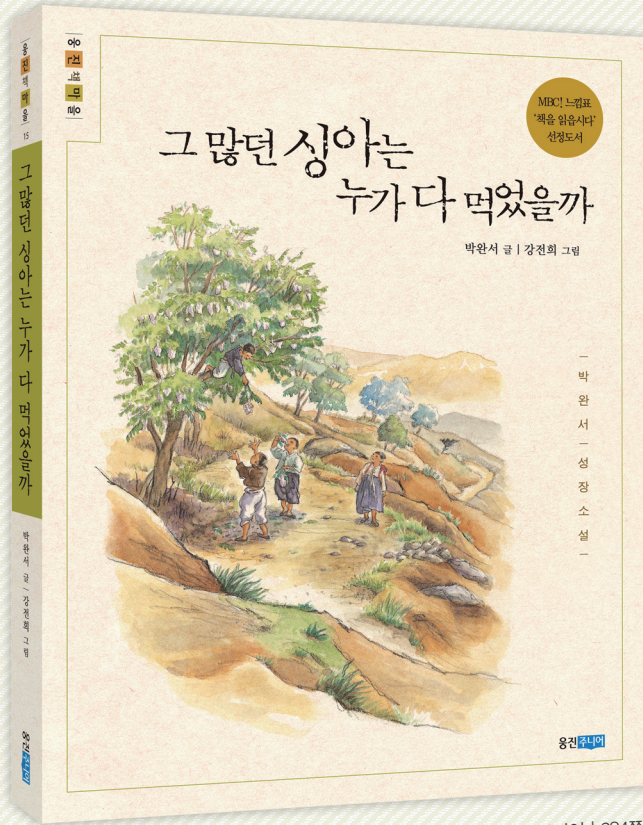


독서수업
지도안
교사용

초등학교 5학년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박완서 글 | 박완서 그림 | 웅진주니어 | 284쪽

독서수업 주안점

-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 기르기
-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 기르기
- 자신의 읽기 습관을 점검하며 스스로 작품을 찾아 읽는 태도 기르기
-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 기르기

차시별 수업 계획 예시

단계	개요	차시	활동 내용	비고
1	독서 준비	1	<p>읽을 책을 정하고 책 미리 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 방법 알기 ·문학 작품 가운데에서 읽을 책 정하기 ·책 미리 보기: 표지 ·책 미리 보기: 책의 저자와 머리말 ·책 미리 보기: 차례 	학생 1인에 책이 1권씩 모두 있어야 함.
2	독서	2	책을 즐기며 읽기	3차시 동안 책을 다 읽을 수 있도록 시간을 배분하기.
		3		
		4		
3	독서 후	5	<p>생각 나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서 토의하기(1) ·독서 토의하기(2) 	학생들에게 독후활동지를 나누어 주기.
		6	<p>독후활동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휘력 기르기 ·독해력 기르기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1) 	
		7	<p>독후활동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2)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3) 	
		8	<p>정리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서 활동 돌아보기 ·더 찾아 읽기 ·독서 습관 기르기 	

■ 교육과정 내용 요소

- 읽기 : 중심 생각 파악, 내용 간추리기, 경험과 느낌 나누기
- 쓰기 : 문단 쓰기, 쓰기에 대한 자신감
- 문학 : 인물-사건-배경, 작품에 대한 생각과 느낌 표현



독서 지도안





📖 우리 학교 도서관 둘러보기

도서관에는 책이 아주 많은데 내가 찾는 책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도서관에서 책을 찾았던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 책 제목을 보고 분야에 맞게 책꽂이에 책 꽂아 보기

책과 책꽂이마다 번호가 붙어 있으므로 도서 검색대에서 책 번호를 찾은 다음 그 번호를 찾아 간다.

TIP 책 제목을 보고 어떤 분야의 책인지 짐작하여 책꽂이에 꽂아 봅니다.

📖 청구 기호에 쓴 숫자 알아보기

💡 『도서관에서 책 찾기 놀이 하기』

- ① 모둠 친구끼리 의논해 담당 구역을 정하고, 각자 마음에 드는 책을 한 권씩 고른다.
(예. 첫 번째 친구는 100번대, 두 번째 친구는 200번대, 세 번째 친구는 300번대에서 책을 고른다.)
- ② 쪽지에 자신이 고른 책 제목과 청구 기호, 쪽지 주인을 쓰고 책은 제자리에 다시 꽂아 둔다.
- ③ 쪽지를 반으로 잘라 책 제목이 쓰인 부분은 자신이 가지고, 청구 기호와 쪽지 주인이 쓰인 부분은 다른 친구와 바꾼다.
- ④ 친구와 바꾼 쪽지에 쓰인 청구 기호를 보고 책을 찾는다.

- ⑤ 쪽지 주인을 찾아가 자신이 찾은 책이 맞는지 확인한다. 맞으면 교과서 13쪽 표에 책 제목과 청구 기호를 쓴다.
- ⑥ 놀이를 되풀이하면서 책을 분야별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참고 한국 십진분류법

[000 총류] : 지식 및 학문 일반, 이론 체계 및 시스템, 컴퓨터과학,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데이터

[100 철학] 150 동양철학, 160 서양철학, 170 논리학, 180 심리학, 190 윤리학 등

[200 종교] 220 불교, 230 기독교, 240 도교, 250 천도교 등

[300 사회 과학] 310 통계자료, 320 경제학, 340 정치학, 370 교육학 등

[400 자연 과학] 410 수학, 420 물리학, 430 화학, 440 천문학, 480 식물학, 490 동물학 등

[500 기술 과학] 510 의학, 550 기계공학, 570 화학공학, 590 생활과학 등

[600 예술] 630 공예, 640 서예, 660 사진예술, 670 음악 등

[700 언어] 710 한국어, 720 중국어, 740 영어, 750 독일어, 760 프랑스어, 780 이탈리아어 등

[800 문학] 810 한국문학, 840 영미문학, 860 프랑스문학, 870 스페인 및 포르투갈 문학 등

[900 역사] 910 아시아, 920 유럽, 930 아프리카, 940 북아메리카, 950 남아메리카 등

TIP

'800'으로 시작하는 책은 문학 분야에 속하고, 특히 '810'으로 시작하는 책은 한국문학 작품이라는 것을 알려 주세요.



☞ 누구와 읽을지 정하기

학급 전체 읽기	반 친구들과 의논해 읽고 싶은 책을 함께 골라 읽어요.
모듬끼리 읽기	모듬 친구들과 의논해 읽고 싶은 책을 함께 골라 읽어요.
혼자 읽기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혼자 골라 읽어요.

☞ 문학 분야의 책 가운데에서 읽을 만한 책 고르기

- (예) 나는 동화책 한 권을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읽으면 좋겠어.
- (예) 나는 시를 좋아해. 친구들과 함께 시집을 읽고 싶어.
- (예) 문학 분야에는 동화, 시, 희곡, 수필같이 여러 갈래가 있구나.

☞ 친구들에게 책 추천하기

책을 추천할 때에는 책을 추천한 까닭이 자세히 드러나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

📖 이번 학기에 읽을 책 정하기

💡 이번 학기에 읽고 싶은 책 목록 만들기

책 제목	지은이	쪽수	출판사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박완서	284쪽	웅진주니어
위험에 빠진 도서관을 구해라	홍예리	160쪽	청어람주니어
희망의 단지 DMZ	황선미	120쪽	이마주

이번 학기에 읽기로 정한 책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책을 정한 까닭	(예) · '싱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서 책을 읽고 그 의미를 알아보고 싶다. · 웅진책마을 시리즈의 다른 책들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읽었기에 이 책도 기대가 되고 읽어보고 싶다.

참고 이번 학기에 읽고 싶은 책을 도서관에서 찾기 예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 한국문학 작품이므로 청구 기호 810번대에서 책을 찾는다.

〈위험에 빠진 도서관을 구해라〉 ⇨ 문학 작품이므로 청구 기호 800번대에서 책을 찾는다.

〈희망의 단지 DMZ〉 ⇨ 한문학 작품이므로 청구 기호 810번대에서 책을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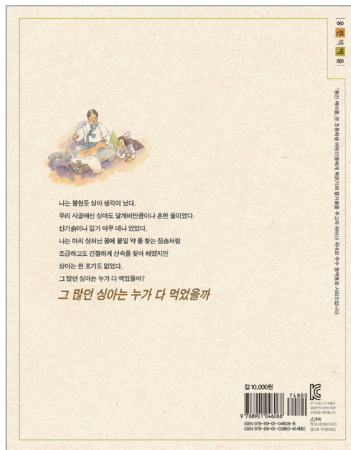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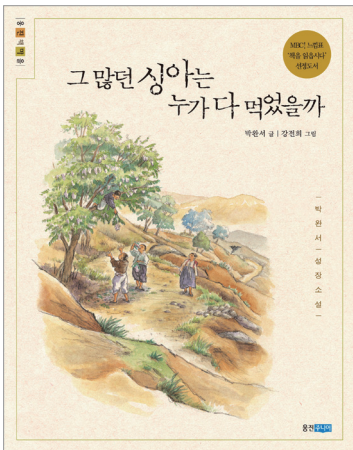


☞ 자신이 정한 책의 앞뒤 표지를 살펴며 친구들과 질문 주고받기

- ① 자신이 정한 책을 뒤집어 펼쳐 놓는다.
- ②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본다.
- ③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책과 관련 있는 질문을 만들어 본다.
- ④ 친구들과 함께 질문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표지 탐색하기

학생들 각자 갖고 있는 책 표지를 보면서 다음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합니다.



💡 책 제목을 보고 질문 주고받기

(예) 학생1 :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가 무슨 뜻일까?

학생2 : '싱아'라는 식물을 이제는 찾아볼 수 없다는 뜻 아닐까?

💡 앞뒤 표지 글귀를 보고 질문 주고받기

(예) 학생1 : '나'에게 '싱아'는 어떤 의미인 걸까?

학생2 : '싱아'는 '나'에게 어린 시절의 기억과 고향의 그리움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가 아닐까?

💡 앞뒤 표지 그림을 보고 질문 주고받기

(예) 앞표지 그림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따 먹고 있는 걸까?

뒤표지 그림에서 엄마와 '나'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일까?



책의 저자와 머리말을 살펴보고 내용 예상하기

책의 저자와 머리말을 살펴보고 내용을 예상해 봅시다.

- ① 책의 저자를 살펴보고 내용 예상하기
- ② 책의 머리말을 읽고 내용 예상하기

· 머리말은 작가의 말, 서문이라고도 해요. 작가님이 책을 쓰신 까닭이나 책 전체 내용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고, 작가님이 독자에게 바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저자와 머리말(작가의 말) 탐색하기

책의 앞표지 날개에 나와 있는 글쓴이 소개와 4~5쪽에 나와 있는 머리말을 보면서 다음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책의 앞표지 날개 부분입니다. / 책의 4~5쪽입니다.

글을 쓴 박완서 선생님은

1931년 경기도 개풍에서 태어나 숙명여고를 졸업,
서울대 국문과에 입학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1970년 '여성동아' 장편소설 공모에
나뭇이 당선되면서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하여,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미망>,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등의 소설을 써 온
우리나라 대표 여성작가입니다. 한국문학작가상(1980),
이상문학상(1981), 대한민국문학상(1990),
이산문학상(1991), 동인문학상(1994), 대산문학상(1997),
만해문학상(1999)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작가의 말
청소년만을 내면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청소년용으로 새로 내게
되어 기쁩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단풍을 하는 걸 거로 어렸을
때부터 무척 좋아한 단풍이 요즘도 정말 고이좋아하고 싶어 오래간만에 새 책을
다시 쓴 만큼 읽음으로써 보게 되었습니니다.

그러나 몇 개 요자를 바르로운 것 말고는 거의 고치지 않았습니니다. 고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이 책은 저로부터 생장소로 키워졌기 때문입니니다. 고칠
않는 것들은 없지만 그 고칠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 조그마한 변경 책으로
만들어 지었던 부호 부자집안으로 옮겨 출판되었는데 읽어 보시면은은은은
읽어 보게 됩니다. 다만이나 이 이야기는 어찌하든 조부모, 할아버지가 살아
있는 이야기입니니다. 청소년이란 나는 누구이며 내가 속한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하는 의문은 책보다 시급하는 사기입니니다. 조상이 없이 우리 생활이 태어날 수
없었던 것만 오늘 우리가 어떤가 하는 것은 그분들이 그 구구한 권력투쟁이
그들을 시대로로 이끌었다는 걸까 생각입니니다. 조세 부담을 많이 지는 사람
사는 모습은 우리의 관세(세금)로써 이해해 주길 바라며, 더 큰 바램은 그
안에 있는 인간적 존엄성을 억압받지 못하며 꿈을 얻어 내는
입니니다. 더불어 도래해 나는 누구일까 하는 개인적인 고민에도 승거를
공감하게 할지언정 수 조기를 바램입니니다.

필요한대로 이 단편집과 함께 우리 손에 안착된 권필부 작가를
아름답고 사실적인 삽화로 청소년들을 병행하여 청소년들에게 꼭 읽기
원하는 내용에 담은 단편집 드립니니다.

박 완 서

💡 글쓴이 박완서 선생님이 쓰신 다른 작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나목》,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미망》,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 등

💡 글쓴이 박완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청소년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 나는 누구이며 내가 속한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하는 의문이 싹트는 시기

💡 글쓴이 박완서 선생님이 이 책의 독자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 (예) 청소년기에 한국근대사의 굴곡을 경험했던 자신의 삶을 떠올리면서 이 책을 읽는 청소년들도 우리의 근세사(近世史)를 이해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서도 슬기롭고 건강하게 마주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같다.




📖 책의 차례를 살펴보고 내용 예상하기

차례를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알 수 있어요.

TIP 차례는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눈에 보여 줍니다. 또한 책을 본 후 내용이나 문장을 찾아볼 때도 도움을 주지요. 책을 읽기 전에 차례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펼쳐질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차례 탐색하기

책의 6~7쪽 차례입니다.

<p>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p>  <p>싱아 <small>1950년대와 1960년대, 농민은 하루 단 몇 톨 밖에 없었으며, 식생활은 물론이고, 건강상으로도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새로운 농민들이나 재민들은 새롭고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했습니다.</small></p>	<p>차 례</p> <p>작가의 말! 청소년만을 위한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성의 시기 8 2. 아득한 서울 34 3. 온 땅에서 48 4. 동무 없는 아이 71 5. 꿩알야망 집 110 6. 일야비치의 일거니 129 7. 호박의 열매 146 8. 꼬챙이 물 164 9. 9백이 처산 오버 183 10. 양중모계 197 11. 그 전날 밤의 진화 216 12. 찬란한 예감 240
--------------------------------------------------------------------------------------------------------------------------------------------------------------------------------------------------------------------------------------------------------------	------------------------------------------------------------------------------------------------------------------------------------------------------------------------------------------------------------------------------------------------------------------------------------------------------------------------------------------------------------------------------------------------------------------------------------------------------

TIP

책을 읽기 전에 표지와 차례를 보고 미리 내용을 짐작할 때는 정답을 꼭 알아맞히지 않아도 됩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친구들과 자유롭게 주고받아 봅시다.

💡 이 책은 몇 개의 장(챕터)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 12개

💡 이 책의 장(챕터) 제목에 언급된 주인공의 가족은 누구누구인가요?

⇒ (예) 오빠와 엄마, 할아버지와 할머니이다.

💡 각 장(챕터)의 제목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가요? 또 흥미로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예) 동무 없는 아이 / 그 아이에게 왜 동무가 없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 각 장(챕터)의 제목을 보고 예상할 수 있는 사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예) 서울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일, 괴불마당 집으로 이사 간 일, 문패가 누군가에 의해 망가진 일 등



책 읽기 책을 즐기며 읽기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하면서 앞에서 정한 책을 즐기며 봅시다.

책을 읽을 때 생각할 점	장면을 떠올리며 읽기	이야기나 시의 장면을 머릿속에 자세하게 그리며 읽어요.
	상상하며 읽기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 상상하며 읽어요.
	인상 깊은 부분을 찾으며 읽기	재미있는 표현이나 기억에 남는 글귀를 생각하며 읽어요.
	다른 작품과 연결 지으며 읽기	다른 작품을 떠올려 건주어 보며 읽어요.
	자신의 삶과 연결 지으며 읽기	작품에 나온 세계를 자신의 삶과 관련지으며 읽어요.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즐기며 읽기-장면을 떠올리며 읽기

TIP

장면을 떠올리며 글을 읽으면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더 즐겁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장면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읽기가 어려울 때 참고하기

① 그림을 살펴보면 장면을 떠올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 191쪽. 6·25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난을 가기 위해 서로 기차에 달려드는 모습.

② 인물이나 장소를 자세히 나타낸 부분을 보면 장면을 떠올리기가 쉽다.

(예) 118쪽 12~16행. 우리는 그 집을 괴불마당 집이라고 불렀다. 마당이 괴불처럼 세모였기 때문이다. ~ 집이 들어앉지 않은 삼각형의 한쪽 변은 높은 축대고 축대 밑은 그 아랫집 뒤꼍이었다.

③ 장면에 나온 낱말들이 어떤 분위기를 나타내는지 생각해 본다.

(예) 160쪽 19행 ~ 161쪽 1행. 극도의 식량난으로 딸 가진 집에선 한 식구라도 덜고 싶은데 정신대 문제까지 겹치니 하루빨리 치우는 게 수였고, 아들 가진 집에선 징용 내보내기 전에 손이라도 받아 놓고 싶어 했으니까.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즐기며 읽기_상상하며 읽기

TIP

상상하며 읽기는 책 내용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짐작해 보거나 책에 제시된 상황을 바꾸어 보는 읽기 방식입니다. 상상하며 읽기를 통해 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나’가 엄마의 서울 생활 권유를 뿌리치고 박적골에서 유년기를 보냈으면 어땠을까?

·‘나’가 엄마의 말씀을 거역하고 메이데이날 남산의 좌익운동에 참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의 가족들도 6·25전쟁 때 마을 사람들과 같이 피난길에 올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 생각 나누기_독서 토의하기

1) 책을 읽고 친구들과 생각 나누기

💡 책 내용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이야기 나누기

(예) · 누가 나오나요?

·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 인물이 사건을 겪은 뒤에 사건을 겪기 전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 책 내용에서 단서를 찾아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이야기 나누기

(예)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인물은 왜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했을까요?

(예) · 인물은 어떤 성격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책을 읽고 무엇을 느꼈는지 질문을 만들어 이야기 나누기

(예) · 책을 읽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나 장면은 무엇인가요?

· 이 책에서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 자신의 삶과 관련짓는 질문을 만들어 이야기 나누기

- (예) · 인물이 느낀 것과 비슷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나요?
- 내가 그 인물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 주인공이 겪은 것과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나요?

2) 앞에서 나온 질문 외에 여러 가지 질문 만들기

3) 주제를 정해 독서 토의하기

① 독서 토의 주제 이야기하기

- (예) · 등장인물에 공감하거나 공감하지 못한 부분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기
- 책에 나온 세계와 현실 세계를 견주어 보는 내용으로 토의하기
- 두 책의 비슷한 점이나 다른 점을 이야기 나누기
- 책에서 다루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토의하기

② 토의 주제 정하기

③ 토의 주제를 생각하여 자신의 의견 정하기

TIP 자신의 의견을 밝힐 때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④ 다른 사람 의견을 듣고 함께 이야기하기

⑤ 토의하고 나서 작품을 바라보는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하기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읽고 생각 나누기-여러 가지 질문 만들기

TIP 이야기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상황이나 사건의 이해를 묻는 질문, 낱말의 뜻을 묻는 질문 등이 있고, 이야기를 바탕으로 추론하는 질문에는 주인공의 심리를 묻는 질문, 지은이의 의도를 묻는 질문,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묻는 질문 등이 있습니다.

책 내용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예) 시골집의 문패를 망가뜨린 사람들은 누구인가?
책 내용에서 단서를 찾아 답할 수 있는 질문	(예) '나'의 율케의 친정에서는 결혼식을 올렸는데도 왜 세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책을 읽고 무엇을 느꼈는지 묻는 질문	(예) 6·25 전쟁이 일어나 피란을 가는 사람들을 보고 전쟁에 관해 어떤 점을 느꼈는가?
자신의 삶과 관련짓는 질문	(예) 이 책에 드러난 '나'의 유년기와 청소년기 시절을 참고할 때, 나는 청소년기 시절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읽고 주제를 정해 독서 토의하기

1) 독서 토의 주제 이야기하기

(예) 일제 시대에 창씨개명을 하자는 엄마의 태도는 바른 것일까?

(예) 자식은 큰 도시에서 키워야만 한다는 엄마의 신념은 자식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까?

2) 토의 주제 정하기

토의 주제	(예)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자식들에게 창씨개명을 하자는 엄마의 태도는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인가?
-------	-------------------------------------------------------------------

3) 토의 주제를 생각하여 자신의 의견 정하기

내 의견	(예) 창씨개명을 하자는 엄마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한 까닭	(예) 창씨개명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억압 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다고 해서 우리의 정신이 담긴 이름마저 일본식으로 바꾸려고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내 의견	(예) 창씨개명을 하자는 엄마의 태도는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한 까닭	(예) 자식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자식의 앞날을 위해 교육열을 높이는 엄마의 태도로 보아, 창씨개명을 하자는 엄마의 선택은 시대적 상황에서 자식들을 지키고자 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어휘력 기르기

[복사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용 활동지는 맨 뒤에 있습니다.]

1) 다음 뜻에 해당하는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보기]

아비다리

고무되다

보신

뒷공론

낱말의 뜻	낱말
① 자신의 몸을 온전히 지킴.	보신
② 힘이 나도록 <u>격려</u> 를 받아 <u>용기</u> 가 나다.	고무되다
③ 일이 끝난 뒤에 <u>쓸데없이 이러니저러니 다시 말함</u> .	뒷공론
④ <u>보잘것없는 사람이 제 댄에는 가장 만족하여 부리는 교만</u> .	아비다리

2)~3)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발췌한 것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 아버지를 여윈 것은 세 살 때라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지만 할아버지가 중풍으로 무력해지
신 걸 보는 것은 나에게 두 번의 아버지 상실이었다.

(㉠)으로 같은 해 엄마가 서울로 오빠 뒷바라지를 하러 떠났다.

· 엄마는 내가 행여나 이 두 개의 주소를 헛갈릴까 봐 (㉡)했다.

(나) · 졸업식이 끝나자 단체로 또 신사참배를 하고 헤어진다는 것이다. 복순이와 나는 낭패스런
눈길을 교환했다. 나는 그 애가 나하고 같은 심정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2) 아래의 뜻을 참고하여 (가)의 ㉠~㉡에 들어갈 한자 성어를 쓰시오.

㉠의 뜻 :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

㉡의 뜻 :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

⇒ ㉠ : 설상가상, ㉡ : 전전긍긍

3) 한자 성어 ‘이심전심(以心傳心)’의 뜻과 관련 깊은 부분을 (나)에서 찾아 쓰시오.

뜻 :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 그 애가 나하고 같은 심정



📖 독해력 기르기

[복사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용 활동지는 맨 뒤에 있습니다.]

💡 다음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주인 집 여자에게는 자기 자식 얼굴에 손톱 자국 난 것도 분했지만, 평소 누구하고 잘 어울릴 줄 모르는 아이가 특하면 그런 해코지를 하니 요새말로 하면 심각한 문제아로 보였을 것이다. 엄마한테 나중에 무슨 꼴을 보려고 자식을 그 따위로 가르치느냐고 동정 어린 악담을 했다. 그걸 옆에서 보고도 안 말렸다고 오빠까지 싸잡아 욕을 먹었다.

⇒ 책의 113쪽~114쪽입니다.

(나) 그러나 엄마는 내가 내 마음대로 편지를 쓰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엄마는 편지에는 일정한 틀이 있다고 믿고 있었고 거기에 어긋나는 편지를 탄 사람도 아닌 웃어른에게 드린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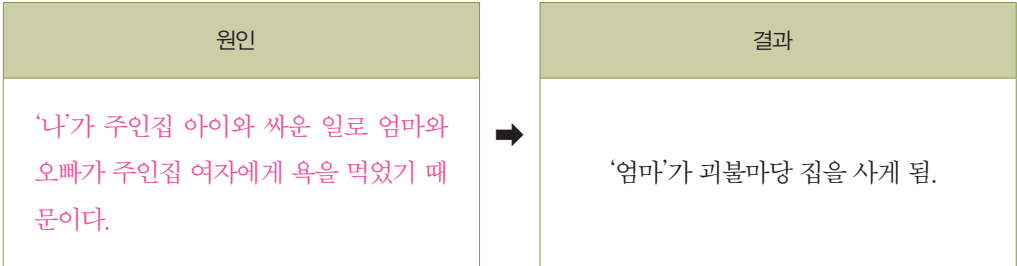
⇒ 책의 124쪽입니다.

(다) 엄마의 반일 감정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됐다.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상경하자 엄마는 오빠와 숙부에게 우리도 창씨개명을 하자고 재촉했다. 그건 나도 은근히 바라는 바였고 또 으레 그럴 수 있으려니 했다. 그러나 이번엔 오빠가 반대를 하고 나섰다. 여태껏도 견뎠는데 좀 더 견뎌 보자는 것이었다.

⇒ 책의 135쪽입니다.

1) 아래는 (가)~(나)에 나타난 ‘할머니’의 ‘땅벌’에 대한 생각이다.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조건] 결과와 관련된 사건을 (가)를 참고하여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쓸 것



2) (나)에서 알 수 있는 ‘엄마’의 성격을 쓰시오.

⇒ 엄마는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 (해설) (나)로 보아, ‘엄마’는 편지에는 일정한 틀이 있다고 믿고 웃어른께는 틀에 맞게 편지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다)에 드러난, 창씨개명에 관한 가족들의 입장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 ‘나’를 비롯한 식구들은 창씨개명을 찬성하는 반면, 오빠는 반대하고 있다.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1)

[복사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용 활동지는 맨 뒤에 있습니다.]

💡 다음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긴 장대 끝에 창같이 생긴 날카로운 쇠붙이를 꽂고 다니면서 그걸로 천장, 아궁이, 벗짚단, 갈 잎 가리 등을 마구 찢러 보았다. 우리 마을은 아니었지만 이웃 마을에서 갈잎 가리 속에 숨었던 소녀가 그 창 끝에 옆구리를 찢렸다는 소문은 너무도 끔찍해 백주의 악몽이었다. / 소녀가 거기 숨은 까닭은 정신대 때문이었다.

⇒ 책의 160쪽입니다.

(나) 벌써 몇 마을째 돌고 있다고 했다. 청년들은 그렇게 이 마을 저 마을을 돌면서 세를 붙렸고 자기 마을 친일파 집을 때려 부술 때는 그 마을 청년은 나서지 않고 뒤에서 구경만 했다.

⇒ 책의 182쪽입니다.

(다) 튼튼한 대문짝까지 우지끈 깨부수고 난 청년 중의 하나가 ㉠문패를 때서 패대기쳤다. 내가 어려서부터 익히 봐 온 할아버지의 성함이 쓰인 문패였다.

⇒ 책의 182쪽입니다.

(라) 나는 뭐라고 목청껏 악을 쓰며 그 청년을 향해 돌진했다. 할아버지 서책으로 그릇을 만드는 걸 볼 때는 재미만 있었는데 문패를 패대기치는 건 왜 그렇게 참을 수가 없었는지 모를 일이다.

⇒ 책의 183쪽입니다.

1) (가)의 시대가 일제 강점기임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낱말을 찾아 쓰시오.

⇒ 정신대

2) 청년이 ㉠과 같이 행동한 이유는 무엇인지 (나)를 참고하여 쓰시오.

⇒ 해방 후 친일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3) (다)~(라)의 상황에서 ‘나’는 어떤 심정이 들었는지 [조건]에 맞게 쓰시오.

[조건] ‘나’가 가치를 두고 있는, ‘문패’가 상징하는 의미를 포함하여 쓸 것.

⇒ (예시답안) 비록 돌아가셨지만 집안의 큰 어른인 할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는 문패가 꽤대기처지자 ‘나’는 속상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분노했을 것 같다. 등



📖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2)

[복사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용 활동지는 맨 뒤에 있습니다.]

💡 다음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하긴 대학의 좌익조직이 더 막강할 때였으니까 엄마가 오빠의 대학 진학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것은 뭘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 / 결국 우리는 ㉠돈암동 집에서도 안정을 못 하고 6·25가 날 때까지 거의 일 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다녀야 했다. 신문로 집에서처럼 우리 집이 불온한 모의의 아이트트가 됐다고 판단되는 즉시 엄마는 치를 떨며 발작적으로 이사를 결심했고, 어떤 때는 집에 있는 시간을 그냥 놔둔 채 야반도주를 해서 숙부네와 합쳐서 산 적도 있다.

⇒ 책의 210~211쪽입니다.

(나) 메이테이가 돌아왔다. 메이테이 행사를 좌익에선 남산에서, 우익에선 서울 운동장에서 따로 따로 편을 갈라 하는데, 우리는 학교를 결석하고 남산에서 하는 메이테이 행사에 꼭 참석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학교를 결석하고까지 남산에 갈 것인가는 선뜻 결심이 서지 않았다.

⇒ 책의 211~212쪽입니다.

(다) 학교에다 전화를 걸어 줄 테니 어제부터 아팠던 걸로 하고 며칠 결석을 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비겁한 일인 줄 번연히 알면서도 엄마의 애원을 뿌리치지 못했다.

⇒ 책의 212쪽입니다.

1) ‘엄마’가 ㉠과 같이 행동한 이유는 무엇인지 (가)를 참고하여 쓰시오.

⇒ ‘오빠’의 좌익조직 생활에 대한 엄마의 거부감 때문이다.

(해설) ‘엄마’가 치를 떨고 발작적으로 이사를 결심하는 것으로 보아, ‘엄마’는 ‘오빠’의 좌익조직 생활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 자신이 (나)~(다)의 상황에 놓인 ‘나’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나’의 결정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 (예시답안) 무서운 시대이니만큼 나도 ‘나’처럼 정치적인 일과 관련해서는 선뜻 나서지 못했을 것 같다.



📖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3)

[복사하여 나누어줄 수 있는 학생용 활동지는 맨 뒤에 있습니다.]

💡 다음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국도는 특히 폭격이 심했다. 그래서 군대와 민간이고 밤에 이동하는 것 같았다. 몇 번이나 공습을 만난 발이나 논으로 뛰어들어 포복해 있다가 다시 걷곤 했다. 오빠가 의용군에 나간 건 틀림이 없었다.

⇒ 책의 257쪽입니다.

(나) 시선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불안하게 흔들리고, 작은 소리에도 유난스럽게 놀랐다. 잔뜩 겁을 먹은 표정은 무슨 소리를 해도 바뀌지 않았다. 따뜻한 음식과 잠자리도 그를 안정시키진 못했다. 밤에는 바람 소리, 쥐 부스럭대는 소리에도 놀라 한참을 못 잤다. 어디를 어떻게 무슨 꼴을 당하며 왔기에 그 꼴이 되었을까. 죽기를 무릅쓰고 사선을 넘은 무용담도 있으려면 말하지 않았다. 그런 흔적도 안 보였다. 오빠는 심한 피해망상을 앓고 있었다.

⇒ 책의 274쪽입니다.

(다) 독립문까지 뻗어 보이는 한길에도 골목길에도 집집마다에도 아무도 없었다. 연기가 오르는 집이 어찌면 한 집도 없단 말인가. 형무소에 인공기라도 꽂혀 있다면 오히려 덜 무서울 것 같았다. 이 큰 도시에 우리만 남아 있다.

⇒ 책의 280쪽입니다.

1) 의용군에서 도망쳐 온 ‘오빠’의 모습은 어떠한지 쓰시오.

⇒ 온몸과 정신이 피폐해진 채 돌아온 오빠는 피해망상을 앓고 있다.

2) (가)~(다)에 드러난 6·25 전쟁의 상황을 보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쓰시오.

⇒ (예시답안) 평화로웠던 집들이 무너지고 건강한 사람의 정신을 앗아간 것으로 보아, 6·25 전쟁은 참혹하고 잔인한 것 같다.

3) (다)에서 자신이 ‘나’의 처지라면 어떤 심정이 들지 ‘나’의 처지에 공감하며 서술하시오.

⇒ (예시답안) 전쟁으로 인해 모두들 피난을 가고 나의 가족들만 남아 있다는 생각에 무섭고 두려웠을 것 같다.





📖 독서 활동 돌아보기

[복사하여 나누어줄 수 있는 학생용 활동지는 맨 뒤에 있습니다.]

💡 다음 네 가지 질문에 대하여 매우 잘함, 잘함, 보통임의 3단계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 책 표지, 차례, 그림을 살펴보고 읽을 책을 정했나요?
- 책을 읽을 때 생각한 점을 떠올리며 즐겁게 책을 읽었나요?
- 친구들과 질문을 주고받으며 책에 대한 생각을 활발하게 나누었나요?
- 문학 작품과 자신의 삶을 관련지어 생각해 보았나요?

📖 더 찾아 읽기

💡 자신이 읽은 책과 관련이 있는 다른 책을 더 찾아 읽어 봐요.

(예) 옛이야기에서 소재를 차용해서 새롭게 창작한 동화를 더 읽어보고 싶어.

(예) 소외되고 외로운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동화를 더 찾아서 읽고 싶어.

💡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와 관련 있는 다른 책 더 찾아 읽기

· 읽고 싶은 책 목록

순서	책 제목(출판사)	글쓴이	이 책을 고른 까닭
1	〈박완서 선생님의 나 어릴 적에〉 (처음주니어)	박완서	박완서 선생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이다.
2	〈까치 우는 아침〉 (웅진주니어)	황선미	웅진책마을 시리즈의 다른 동화를 더 읽어보고 싶어서이다.
3	〈많이 아팠지 나의 열두 살〉 (아동문화)	정경련	한 인물이 자라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고민 등의 성장 이야기를 담은 성장 동화를 더 읽어보고 싶어서이다.
4	〈엄마의 말뚝〉 (휴이님)	박완서	서울 생활에 대한 박완서 선생님의 엄마의 집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이다.

📖 독서 습관 기르기

💡 이번 학기 동안에 자신이 읽은 문학 작품을 다른 작품과 연결해 보기

책 제목(출판사)	책을 읽고 떠오르는 다른 작품	그 작품이 떠오른 까닭
〈살롯의 거미줄〉 (시공주니어)	〈우정의 힘〉 (세종꿈나무)	친구 간의 우정을 다룬 점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엄마의 마흔 번째 생일〉 (사계절)	〈엄마 인권 선언〉 (노란돼지)	엄마의 삶을 주제로 하는 점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마음 잡기



어휘력 기르기

이름 :

1) 다음 뜻에 해당하는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보기] 아버다리 고무되다 보신 뒷공론

낱말의 뜻	낱말
① 자신의 몸을 온전히 지킴.	
② 힘이 나도록 격려를 받아 용기가 나다.	
③ 일이 끝난 뒤에 쓸데없이 이러니저러니 다시 말함.	
④ 보잘것없는 사람이 제 댄에는 가장 만족하여 부리는 교만.	

2~3)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발췌한 것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가) · 아버지를 여윈 것은 세 살 때라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지만 할아버지가 중풍으로 무력해 지신 걸 보는 것은 나에게 두 번의 아버지 상실이였다.
 (㉠)으로 같은 해 엄마가 서울로 오빠 뒷바라지를 하러 떠났다.
 · 내엄마는 내가 행여나 이 두 개의 주소를 헛갈릴까 봐 (㉡)했다.
- (나) · 졸업식이 끝나자 단체로 또 신사참배를 하고 헤어진다는 것이다. 복순이와 나는 낭패스러운 눈길을 교환했다. 나는 그 애가 나하고 같은 심정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2) 아래의 뜻을 참고하여 (가)의 ㉠~㉡에 들어갈 한자 성어를 쓰시오.

- ㉠의 뜻 :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
- ㉡의 뜻 :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

⇒ ㉠ :

㉡ :

3) 한자 성어 ‘이심전심(以心傳心)’의 뜻과 관련 깊은 부분을 (나)에서 찾아 쓰시오.

⇒

독해력 기르기

이름 :

💡 다음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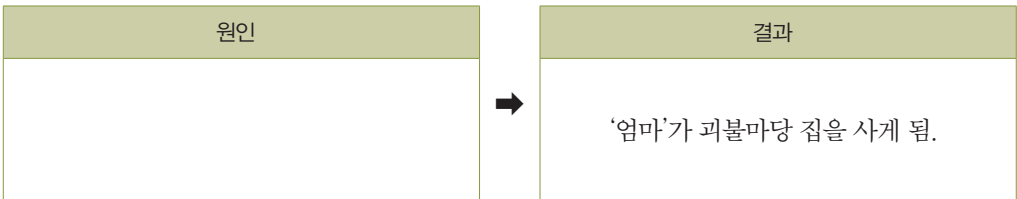
(가) 주인 집 여자에게는 자기 자식 얼굴에 손톱 자국 난 것도 분했지만, 평소 누구하고 잘 어울릴 줄 모르는 아이가 특하면 그런 해코지를 하니 요새말로 하면 심각한 문제아로 보였을 것이다. 엄마한테 나중에 무슨 꼴을 보려고 자식을 그 따위로 가르치느냐고 동정 어린 악담을 했다. 그걸 옆에서 보고도 안 말렸다고 오빠까지 싸잡아 욕을 먹었다.

(나) 그러나 엄마는 내가 내 마음대로 편지를 쓰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엄마는 편지에는 일정한 틀이 있다고 믿고 있었고 거기에 어긋나는 편지를 탄 사람도 아닌 웃어른에게 드린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다) 엄마의 반일 감정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됐다.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상경하자 엄마는 오빠와 숙부에게 우리도 창씨개명을 하자고 재촉했다. 그건 나도 은근히 바라는 바였고 또 으레 그럴 수 있으려니 했다. 그러나 이번엔 오빠가 반대를 하고 나섰다. 여태껏도 견뎌 왔는데 좀 더 견뎌 보자는 것이었다.

1) 다음 표에 제시된 결과를 일으킨 원인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조건] 결과와 관련된 사건을 (가)를 참고하여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쓸 것



2) (나)에서 알 수 있는 ‘엄마’의 성격을 쓰시오.

⇨

3) (다)에 드러난, 창씨개명에 관한 가족들의 입장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1)

이름 :

💡 다음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긴 장대 끝에 창같이 생긴 날카로운 쇠붙이를 꽂고 다니면서 그걸로 천장, 아궁이, 벗짚단, 갈잎 가리 등을 마구 찢러 보았다. 우리 마을은 아니었지만 이웃 마을에서 갈잎 가리 속에 숨었던 소녀가 그 창 끝에 옆구리를 찢렸다는 소문은 너무도 끔찍해 백주의 악몽이었다. / 소녀가 거기 숨은 까닭은 정신대 때문이었다.

(나) 벌써 몇 마을째 돌고 있다고 했다. 청년들은 그렇게 이 마을 저 마을을 돌면서 세를 불렀고 자기 마을 친일파 집을 때려 부술 때는 그 마을 청년은 나서지 않고 뒤에서 구경만 했다.

(다) 튼튼한 대문짝까지 우지끈 깨부수고 난 청년 중의 하나가 ㉠문패를 떼서 패대기쳤다. 내가 어려서부터 익히 봐 온 할아버지의 성함이 쓰인 문패였다.

(라) 나는 뭐라고 목청껏 악을 쓰며 그 청년을 향해 돌진했다. 할아버지 서책으로 그릇을 만드는 걸 볼 때는 재미만 있었는데 문패를 패대기치는 건 왜 그렇게 참을 수가 없었는지 모를 일이다.

1) (가)의 시대적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낱말을 찾아 쓰시오.

⇨

2) 청년이 ㉠과 같이 행동한 이유는 무엇인지 (나)를 참고하여 쓰시오.

⇨

3) (다)~(라)의 상황에서 ‘나’는 어떤 심정이 들었는지 [조건]에 맞게 쓰시오.

[조건] ‘나’가 가치를 두고 있는, ‘문패’가 상징하는 의미를 포함하여 쓸 것.

⇨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2)

이름 :

💡 다음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하긴 대학의 좌익조직이 더 막강할 때였으니까 엄마가 오빠의 대학 진학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것은 뭘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 / 결국 우리는 ①돈암동 집에서도 안정을 못 하고 6·25가 날 때까지 거의 일 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다녀야 했다. 신문로 집에서처럼 우리 집이 불온한 모의의 아지트가 됐다고 판단되는 즉시 엄마는 치를 떨며 발작적으로 이사를 결심했고, 어떤 때는 집에 있는 세간을 그냥 놔둔 채 야반도주를 해서 숙부네와 합쳐서 산 적도 있다.

(나) 메이테이가 돌아왔다. 메이테이 행사를 좌익에선 남산에서, 우익에선 서울 운동장에서 따로따로 편을 갈라 하는데, 우리는 학교를 결석하고 남산에서 하는 메이테이 행사에 꼭 참석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학교를 결석하고까지 남산에 갈 것인가는 선뜻 결심이 서지 않았다.

(다) 학교에다 전화를 걸어 줄 테니 어제부터 아팠던 걸로 하고 며칠 결석을 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비겁한 일인 줄 변연히 알면서도 엄마의 애원을 뿌리치지 못했다.

1) '엄마'가 ①과 같이 행동한 이유는 무엇인지 (가)를 참고하여 쓰시오.

⇒

2) 자신이 (나)~(다)의 상황에 놓인 '나'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나'의 결정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3)

이름 :

💡 다음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국도는 특히 폭격이 심했다. 그래서 군대와 민간이고 밤에 이동하는 것 같았다. 몇 번이나 공습을 만난 발이나 논으로 뛰어들어 포복해 있다가 다시 걸곤 했다. 오빠가 의용군에 나간 건 틀림이 없었다.

(나) 시선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불안하게 흔들리고, 작은 소리에도 유난스럽게 놀랐다. 잔뜩 겁을 먹은 표정은 무슨 소리를 해도 바뀌지 않았다. 따뜻한 음식과 잠자리도 그를 안정시키진 못했다. 밤에는 바람 소리, 쥐 부스럭대는 소리에도 놀라 한참을 못 잤다. 어디를 어떻게 무슨 꼴을 당하며 왔기에 그 꼴이 되었을까. 죽기를 무릅쓰고 사선을 넘은 무용담도 있으련만 말하지 않았다. 그런 흔적도 안 보였다. 오빠는 심한 피해망상을 앓고 있었다.

(나) 독립문까지 뻗히 보이는 한길에도 골목길에도 집집마다에도 아무도 없었다. 연기가 오르는 집이 어찌면 한 집도 없단 말인가. 형무소에 인공기라도 꽂혀 있다면 오히려 덜 무서울 것 같았다. 이 큰 도시에 우리만 남아 있다.

1) 의용군에서 도망쳐 온 ‘오빠’의 모습은 어떠한지 쓰시오.

⇒

2) (나)에서 ‘나’(단후)의 귀에서 꿈지락거렸던 ‘아빠’의 말을 요약하여 쓰시오.

⇒

3) (다)에서 자신이 ‘나’의 처지라면 어떤 심정이 들지 ‘나’의 처지에 공감하며 서술하시오.

⇒



응진주니어

값 7,500원



ISBN 978-89-01-04609-9
ISBN 978-89-01-03863-6 (세트)



KCC 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주의
책 모서리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